

# 법산송효원과 조선 태종의 외손자 권총(權聰)

나는 경북 성주 법산 영천최씨(崔必東)인데, 귀문 안동권씨 따님 한 분이 우리 가문으로 취가해 '살신성효'의 처성을 다 드러낸 행적과, 내 9세 선조 효의 부인이 조선 태종의 외손자 권총을 길러낸 사적에 대한 두 史實을 내가 이미 略述한 바 있으며, 혹시 다른 자료가 있나 하고 귀문 대종회를 방문했다.

충효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 규범이며 국가와 가정을 지탱하는 근간(樞幹)이다.

국가에는 충이 있고 가정에는 효가 있듯이 삼국시대부터 설화소설(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효심으로 印塘水에 몸을 던진) 심청전, 서포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김만중이 유배를 와서 유복자인 저를 길러준 어머니를 그리며 지은 소설)이 있고, 중국 한서에 나오는 반의지희(旃衣之戲·70이 넘는 아들 노래자(老萊子)가 부모 생일날 기쁘게 해드리려고 색동옷을 입고 춤을 쳤다)도 있다.

그래서 그 노래자의 반의지희를 십여년 전만 해도 이른바 반가(旃家)에서는 부모 수연(壽宴)에 자식들이 비누루 쓴 것에도 새 뒤집어 넣고 어릿것 춤을 추는 순서가 있었다고 들은 바도 있다. 지금은 아마도 아예 그런 유행(遺風)은 입에 담기도 민망해지는 세대임에는 분명하다.

내 고향 성주 법산은 영천최씨 집성촌이며 동네 입구에는 '효의 마을'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근년에 와서는 성주군과 대구 보화원에서 내린 효부상을 모두 여덟 명이나 받은 바도 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 여덟 명에 비교하기도 어려운, 만인이 감동할 효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천최씨 방어사공과 최련(崔鍊)의 부인인 안동권씨 권재서(權在瑞) 님의 따님이시다. 이 분의 효심은 정년 전설이나 설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인적(超人的) 효심의 발현(發現)이었다. 앞선 다른 효부보다 권씨부인의 효심이아말로 어떤 효성에도 비길 수 없는 압권(壓卷)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효부안동권씨 부인은 조선조 초 명신 권근(權近·호 陽村)의 후예로, 방년(芳年)에 최련에게 취가(娶嫁)했는데 최영우(崔永祐) 시아버지가 학질(瘧疾)에 걸려 치성(致誠)을 다해 병구완을 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시아버지의 쾌차(快差)가 얼마나 절절했으면, 차라리 시아버지 대신 잃게 해달라고 천신(天神)에게 빌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육(人肉)이 좋다는



신인(神人) 현몽의 계시를 받았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자신의 허벅지살을 손바닥만큼 도려내어 조리(調理)를 하려는데, 난데없이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 죽었으니 함께 조리해 드렸다. 하늘도 그 처성에 감동했는지 시아버지는 쾌차를 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화타편작(華陀·扁鵲)을 무색케 하려는 듯한 신효(神效)였다.

사실 '의료(醫療)'라는 말도 없을 때 생살을 베었으니 그 창상(創傷)이 어찌 했을까는 짐작만 할 뿐이며, 그 상황에 서도 제대로 처치는 했었던지 곧 완치가 됐다 한다. 하지만 그 효부는 안타깝게도 자녀 하나도 두지 못하고 소머슴들의 뜻대로 나이에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처성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 그리도 일찍 부르시더라 말인가! 생각할수록 애련(哀戀)함을 피할 수가 없다.

삼청전이나 구운몽은 설화일 뿐이지만 이 권부인의 생살을 도려내는 '살신성효(殺身成孝)'야말로 어떤 언설(言舌)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우리를 보편적 시각으로 흔히 쓰는 살신성효는 이럴 때나 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부인의 고매(高邁)한 품성에는 감히 보통사람[凡人]으로서로는 절로 머리가 숙여지니 이럴 땐 합부로 쓰기도 정말 저어됨을 어찌하지 못한다.

1958년 경(내 기억)에 그 효심을 기리는 '최효부안동권씨여표비(崔孝婦安東權氏閨表碑)'가 나의 증조조 죽헌 삼부자를 모신 오암서원(窩巖書院) 일우(一隅)에 수립(建立)이 됐고, 그 여표비 비문은 모두 권효부의 아들(性龍·호 慕軒)의 친서였다. 그때 '閨表'가 무슨 말인



지도 몰랐고 한자 원문은 더욱 알 수가 없어 번역문에서 '...비둘기 날아와 함께...'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 행사에 우리 법산 어른들과 향내의 각 문중에서 많이 참석했으며, 하얀 두루마기 차림에 갓 쓴 노인들의 운집(雲集)이 아직도 내 뇌리에 선연히 남아 있다.

그 권효부의 아드님은, 학식은 물론 서예에도 탁월해 여표비도 친필이었다. 또한 한의학(지금은 韓의학이지만 당시는 漢의학) 서적도 섭렵(涉獵)했던 듯 감각약 등을 지어 동네 일가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보였고, 나도 아버지 한약 지어드린 기억이 있다. 그 때만 해도 '한의학 서적'보다는 '의서'가 더 친숙한 어휘였으며 그런 의서를 탐독할 학식이면 법산에서는 허준(許浚)에 버금가는(?) 의료인이기에 충분했던 시절이었다.

2007년에는 창근(昌坤) 손자가 구지(舊址)에 조모님의 효심을 기리고 세세토록 효사상 현양(顯揚)을 위해 '법산송효원(法山崇孝苑)'을 축조(築造)했고, 2019년 7월에는 (사)담수회(淡水會·儒學)를 송상하는 모인) 고령자부 회원 50여 명이 오암서원을 탐방하고 이곳 송효원에도 순례 탐방하는 행사도 있었다.

오늘의 이 물질지상주의 시대의 가치관과 초음속으로 변화하는 세대는 '효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효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이 오늘의 이 '불편한 진실'인데, 이럴 때 '법산송효원'의 존재감을 대단히 크다 하겠다. 이른바 충효가성(忠孝之家聲)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말이다. 아울러 이 법산송효원이 효도에 관한 '관공명소'가 됐으면 하는 내 자그만 소망도 있다.

알고 싶은 것 또 하나, 나의 선조 9세 일(壹)의 부인[夫人] 김해송씨가 조선 태종의 외손자 권총(權聰)을 길러준 것 말이다. 효는 외가인 성주에 입향했

고 영덕군수와 판군기사(判軍器侍事)를 역임했다. 그 때 태종이 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손자 권총을 특히 아꼈으며 그를 양육할 부녀자를 유항(儒嫗)인 성주에서 물색되길 원하고 있었다. 이 때 바로 일의 부인이 선발됐으니 시(詩)와 예(禮)의 가법(家法)으로 권총을 양육해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혹은 도총제(都摠制)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록도 있다.

인명사전에 의하면 권총은 김창군(吉昌君) 권귀(權桂)의 아들로 나와 있으며 궁중에서 성장했다고 돼 있었다. 내 선조 일의 관직도 했으니 부인은 궁중에 들어가 오직 권총의 훈육에 전력을 쏟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다. 왕조시대에 임금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일 수도 있으니 상당한 자존심도 갖게 한다.

한참 전 나는 일의 부인 족보 말미에 있는 행적에, '...예장(禮葬) 유갈(有曷)'이라고 돼 있음을 보고 그 '예장'의 본원(本源) 알 수 없어 늘 의문을 품어 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인 제수전(諸孫千·성주문화원장)의 저작물을 보고 그 의문을 다소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정사에는 없더라도 '궁중야화'라는 이름으로 야사예나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기도 했었다는 말이다.

안동권문(安東權門)! 족보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전통문화인데 그 시원(始原)은, 현존하는 것으로는 1476년에 간행한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로 알고 있다. 이런 명문가 종보(宗譜)에 이 줄문(拙文)을 게재하게 된 데에 우선 감사하며 못다 한 많은 얘기는 다음으로 미룬다.

만철 최필동

## 행주기공사 추향제

2019년 10월 13일 (음9월 15일) 10시 30분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기공사(紀功祠(행주서원)에서는 선무공신1등충장공(宣武功臣1等忠莊公) 권율(權輿) 도원수를 주벽으로 선무원종공신1등칠도병마절도사(宣武原從功臣1等七道兵馬節都士) 선거이(宣居怡) 선무공신3등(宣武功臣3等) 조방장(趙邦將) 한성판윤(漢城判尹) 회영부사(會寧府使) 조정경(趙鼎敬) 소모사(召募使) 조도사(調度使) 함안군수(咸安郡守) 독운사(督運使) 변이중(邊以中) 경기수사(京畿水使) 전라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 이빈(李蘋) 충청수사(忠淸水使) 전라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 정경(丁傑) 절충장군(折衝將軍) 국일도선서부(宗國一都大禪師扶宗) 수교보광원랑(水交保光元朗) 처영(處靈) 7장수의



배향 인물들을 위한 추향제가 봉행됐다. (권정택 전 기로회장)

## 백록서원 추향제 봉행

백록서원(白鹿書院) 추향제가 10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백록서원에서 봉행됐다.



백록서원은 1710년(숙종 36) 수많은 고을 선비들이 "오직 우리 선생의 반듯한 행실과 지극한 효성에 대해 사람들이 공공연히 전해져 온 것이 오래됐다. 하물며 이 고을은 선생께서 왕래하시던 곳이라 그 남긴 풍교와 운치를 누가 소급해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리?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지 못해 공문에서도 애석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제 그 일마저 자손들에게 넘겼으니 우리 고을의 큰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하니 이에 진사 나성운과 이충은 등이 앞장서서(남강공 권상 설기) 발의해 남강 권상(權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했다.

청주가 처가인 남강 선생은 정암 조광

조의 제자인 놀재(訥齋) 이충건(李忠健)의 문하에서 장음(長吟) 나식(羅翹)과 더불어 수학했다.

이날 초한관에는 윤태무 청주향교 전교, 아현관은 신원식 단군성전회장, 종현관에는 박승근 청주향교 수석장인이 각각 담당했다.

특히 백제유물전시관에서 모든 제향 모습을 촬영했다. 현재는 청주시 향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모소는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명월산 미조현에 자리하고 있다.

<대중회 사무총장 권건중>

## 안동 구름장골의 주인공 광풍당(光風堂) 권제가(權際可)



안동시에서 서쪽 풍산 방향으로 약 십오리(6km) 거리에 안동시 서후면 교리운곡(雲谷) 즉 구름장골이 위치한다. 안동권씨 회칙에도 있듯이 대종회를 안동으로 가져오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며 다가오는 시조님과 남중공 추향제때 참례원을 돌려, 많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허순경에는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동호 위에 설치된 '선상수상감'을 길을 계획이다.

저녁 식사는 질 좋은 불고기를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근>

이로 인해 후손들은 그동안 연유를 몰랐던 구름장골이라는 지명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우며 한층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이에 선조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

후손으로는 권혁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권현대 목원대학총장, 권혁천 공군대령, 권혁호 기아자동차부사장, 권혁태 대구신리아국 약사, 권혁문 현대중공업 부장 등이 있다.

<취재 권혁세>

## 안동시내 각 파종회장들 두 번째 만나

안동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5개 파종회장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9월 27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북부3길 '민속갈비' 식당에서 권계동 대종회 고문을 비롯해 권숙동 안동총친회장, 권인탑 전국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오익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기호 북아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

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중학 별장공파종회 부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등 모두 11명이 모였다.

이날 권기원 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로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번 안동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파종회장들이 처음 만나서 안동권씨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서 좋은 나머지 두 번째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계동 고문은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를 발족한 후 회장이 여러번 바뀌는 동안 현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권인탑 회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 고향 단상...

권선홍(추밀공파 38세,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내 고향 솔타마을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반도의 마도면 쌍송리에 있다. 지금은 간척을 해 반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삼국시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격전지 중의 하나, 당항성이 있던 곳이다. 오즈음에는 수도권의 난개발로 신음하지만, 예전에는 전기도 없고 도로 포장도 안 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다. 남양, 마도, 송산, 서신 4개 면으로 나뉘어 있고, 수원에서 서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이다. 남양면 북양리와 비룡면 양노리 사이에는 염티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나 염전, 아니면 어업 외에는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었다. 지리적으로 외지기도 하고 교류가 별로 없던 시대라서, 고향쪽 사람들과의 사투리가 있을 정도였다.

내 고향마을은 삼 동네라 해 세 부락으로 이루어지고 모두 50호쯤 됐는데, 몇 집만 제외하고는 모두 권씨 집성부

락이었다. 입학조는 입학 때 원공공신으로 종2품직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사후 요동절도사에 추증됐다고 족보에 나와 있다.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60년부터 객지 생활을 했기에, 산악회와 본격적인 여파를 덜 받았고 전기도 70년대 초반에 들어왔기에, 아마도 마지막 전통세대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서 겪은 한두 가지 추억을 올려 본다.

나는 86년 부산외대에 부임하고 2-3년쯤 후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저씨와 술자리에서 나는 이야기...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전형적인 농부이셨는데, 나를 매우 아껴주셨다. 전적이 있으셔서인

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내집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누구네 집이든 가서 도와주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예전에는 들지 않았던 생각이 요즘에는 든다"면서, 그제 "스스로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드는 건, 이거 한 시간 일을 해주면 얼마인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파문한 탓이었지만,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자본주의의 그것을 이만큼 적나라하게 대비시켜 언급한 것이 없지않나 생각해, 강의시간에도 자주 소개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두차례쯤 오셔서 여러 얘기를 나누셨던, 나를 정말 좋아하셨던 고향 형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자전거 타고 삼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고 나서야 하루일과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동성부락 나름의 전통적 인정이 다른 동네보다는 좀더 컸지 않았을까 싶다.

또 하나는 95년 추석 때 겪은 일. 94년 7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이듬해라, 마음이 몹시 우울하던 때였다. 추석 무렵의 고향에서는 고추를 따서 배를 갈라 햇볕에 말리는 것이 큰일 중의 하나였다. 햇볕을 피해 대문간에서 형과 나, 여동생 셋이서 고추를 가르고 있는데, 바로 뒷집 아저씨께서 내려오셔서 고추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애, 너희 집 고추가 아닌 거 같다"고 물어보셨다. 나는 우리 고추든 아니든, 농사일에 익숙치도 않은 데다가 또 땀기도 해 빨

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형이 "장에서 사온 고추"라고 대답했다. 흔히 시골사람들의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집 순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라고 하는데, 순가락 몇 개냐고 고추가 어느 집에서 농사지는 것인지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어찌했는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래문물과 전통이 뒤섞여 심한 혼돈 속에 있다고 보는데, 전통 속에도 오늘날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의 장점들을 서양의 그것들과 변증법적으로 융합, 발전시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럼으로써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